미래교육 현장 소통 간담회가 13일 지역 학부모와 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전북도교육청과 국가교육위원회가 공동 주관했다.

미래교육 방향 머리맞대

도교육청-국가교육위 공동 주관 현장 소통 간담회

미래교육 환경 구축 · 작은학교 살리기 등 의견 청취

미래교육 현장 소통 간담회가 13일 지역 학부모와 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의 첫걸음으로, 지역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거석 교육감과 이배용 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학부모와 교사들로부터 △전북 미래교육 환경 구축 △교원 정원 정책 △교육 과정과 연계한 대입제도 개선 방안 △교사와 학생 인권의 균형과 조화 △작은학교 살리기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배용 위원장은 "학령인구의 급감,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교육격차 해소, 미래인재 양성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교육 현안은 사회 여러 분야 및 지역 발전과도 긴밀히 연계된 복합적인 과제여서 지역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의 첫걸음으로 지역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와 지역 교육 현안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교육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프리온 질환 · 조혈모줄기세포 관련성 규명

전북대 국성호 · 정병훈 · 이정채 교수팀, 관련 연구 세계 저널 게재

국성호 교수

정병훈 교수

이정채 교수

전북대학교 국성호(생리활성소재과학과)·정병훈(생리활성소재과학과)·이정채(치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프리온 질환 감염에 따른 조혈모줄기세포의 사멸과 노화의 상관관계를 분자세포 수준에서 규명,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연구는 프리온 질환과 조혈모줄기세포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줄기세포 기능 조절을 통한 환자의 생존률 향상, 그리고 프리온 질환 치료제 개발 등에 중요한 원천기술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연구팀은 프리온 질환 동물모델인 생쥐를 통해 실험을 진행해 프리온 질환 생쥐는 뇌뿐만 아니라 골수세포에서 비정상 프리온 단백질(PrPSc)이 발현되며, 이러한 골수세포가 이식된 정상적인 생쥐에도 PrPSc 발현이 나타난다는 것을 입증했다.

특히 프리온 질환 동물에서 조혈모줄기세포의 사멸과 노화가 발생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프리온 질환이 줄기세포의 운명을 조절한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종양학 분야 국제 저명학술지인 'Leukemia(IF=12.883)' 최신호에 게재됐다.

공동연구팀인 국성호·이정채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프리온 질환과 조혈모줄기세포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줄기세포 기능조절을 통한 프리온 질환 환자의 생존율 향상 연구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공동 교신저자인 정병훈 교수는 "현재까지 프리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골수유래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하는 프리온 질환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프리온(prion) 단백질은 동물과 사람의 뇌에 증식해 신경세포를 파괴함으로써 사람에서 크로이츠펠트-야콥병(Creutzfeldt-Jakob disease, CJD)과 소에서 광우병 등을 일으킨다.

/장은성 기자

학생주도 과학동아리 지원팀 공모

도교육청, 21일까지 신청접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3년 학생주도 과학동아리' 지원팀 공모에 나섰다.

이는 과학적 흥미를 지닌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학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교과 역량을 높여주기 위함이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도내 고등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과학동아리(같은 학교 학생 5~15명)를 대상으로 진행, 지도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신청 분야는 △과학탐구 △학생과제연구 △지역과학활동 등 3개 분야다.

먼저, 과학탐구 분야는 물리학·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등 다양한 과학실험과 과학 기반의 융합과학(STEAM) 활동을, 학생과제연구 분야는 과학적 호기심과 창의력·상상력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자유주제의 과제 연구 활동이 중심이다.

또 지역과학활동 분야는 지역의 자연환경 및 과학 관련 기관을 활용한 과학활동, 지역사회의 문제를 과학적 아이디어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연구 및 제시, 지역 과학봉사활동 등이 주요 과제다.

특히 학생주도 과학동아리는 동아리 운영을 교사가 아닌 학생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동아리 구성, 활동주제 선정 및 계획 수립, 예산 관리 등을 학생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동아리는 오는 21일까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대표 학생이 본인의 이메일을 이용해 도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 담당자(mjkimjb@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분야에 관계없이 1개교 1동아리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 결과는 28일 해당학교로 안내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선정된 동아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생대표와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사전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학생중심 동아리 운영으로 우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과학에 흥미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개교 100주년 대학 역사 기록물 기증식

"아버지의 기록물 가치있게 활용되길"

전주사범학교 1회 졸업생 자녀들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가 개교 100주년을 맞아 특별한 대학 역사 기록물 기증식을 가졌다.

13일 전주교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전주사범학교 1회 졸업생(1936년 입학) 고 오영일의 자녀 5남매 중 오용호·오병숙·오양호 3남매가 부친의 유품인 대학 사진, 학적부, 졸업장 등 기록물 193점을 전주교대에 기증했다.

기부자인 오용호 변호사는 부친에게 전해 들은 전주사범학교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대학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나눔을 실천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 참석한 3남매는 "아버지께서 대학의 100년 시간과 함께 생전에 보관한 기록물이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있게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병춘 총장은 "우리 대학교는 어느 대학보다 동문의 결속과 애정으로 많은 성장을 이뤘다"며 "올해 개교 100주년을 준비하는 데 기증해 준 기록물이 큰 의미가 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장은성 기자

순국선열의 뜻 기리며

전주대, 3 · 13 전주 만세운동 재현행사 참여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재학생들이 3·13 전주 만세운동 재현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와 (사)한국고전문화연구원(김병문 이사장)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보훈단체 관계자와 시민, 고교생, 대학생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흥고 3·13 운동 기념탑 참배를 시작으로 104년 전 만세운동을 벌였던 길을 따라 걷고 마지막으로 풍남문 광장에서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104주년을 맞이한 3·13 전주 만세운동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기 위해 열렸다.

행사에 참여한 이찬형 학생(역사문화콘텐츠학과)은 "104년 전 엄혹한 시기에 굴하지 않고 자주독립을 위해 몸을 던진 선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재학생들이 3·13 전주 만세운동 재현행사에 참여했다.

이정욱 학과장은 "향후 학생들과 함께 전주지역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와 역사적 의미를 일반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은성기자

도내 장애인단체 "장애학생 교육권 즉시 보장하라"

도교육청, "전주 J초 특수 1학급 추가 배정 완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3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감은 장애학생 교육권을 즉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북장차연)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13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감은 장애학생 교육권을 즉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주에서도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아 장애학생이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장차연 등의 주장에 따르면 장애학생 A는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다.

작년 전주의 J초에 입학해 1학년을 통합학급에서 보냈지만, 2학년부터는 특수교육지원이 필요해 A의 부모님은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요구하며 혼자 싸웠다고 했다.

이후 6개월 동안 학교장을 설득한 끝에 학교장은 전북교육청에 특수학급 설치를 건의했다. 하지만 2023년 전북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 건의에 대해 반려했다.

반려 이유는 J초 특수학급 학생수가 기준 미달이라고 했다.

이들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2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이상이면 1학급을 설치 할수 있지만, 전북교육청은 자의적으로 '특수학급 편성요건'을 따로 뒀다고 했다. 그 요건에 특수학급 신설을 하려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모연대 등은 2022년 기준 전체 장애학생 10만3,695명중 7만5,462명인 72.8%가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열린 기자회견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지난 9일자로 전주 J초 특수학급 1학급의 추가 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거석 교육감의 특별지시로 특수학급 신·증설 편성요건 등 단서조항을 삭제했다고 입장을 냈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규교실을 확보한 경우, 신설은 대상학생 수 3명 이상이고 3년 이상 유지가 가능하고, 증설은 안정적 운영을 위해 3년 이상 유지가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학생 수 3명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대상학생의 장애정도, 원거리 통학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신·증설을 추진할 수 잇다고 언급했다.

/장은성기자

원광대 자동차부품사업단 특성화 전문 인력양성사업 선정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자동차부품 및 전장기술사업단이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2023년도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단에서는 스마트자동차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등 3개 학과 3,4학년을 대상으로 신규 참여 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전원에게는 취업지원금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취업연계지원금과 현장실습 외에도 산학프로젝트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15일까지 동아리 공모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년 교육공무직원 학습동아리 운영 계획'을 마련, 오는 15일까지 학습동아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공무직원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업무능력과 자기계발 향상을 위한 교육공무직원의 학습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마련된 학습동아리 운영 계획은 2022년 학습동아리 운영 결과 개선협의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에 학습동아리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공무직원은 10~15명 이내로 팀을 구성해 공모신청서·활동계획서·회원 명단 등의 서류를 갖춰 도교육청 노사협력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실현가능성 △업무경험이 낮은 저경력(3년이내) 회원 비율 △자기계발(업무전문성 향상,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여부 등을 평가해 오는 27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학습동아리에는 1,500만원을 지원한다.

노사협력과 심화정 과장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한 축이 되는 교육공무직원들이 학습동아리 운영을 통해 업무 역량과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